
 인천광역시	보도자료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
	배포일자	2022년 11월 13일(일) 총 2매	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과	담당자	• 인천e음운영팀장 변영환 ☎440-4211 • 담당자 정미진 ☎440-4219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사랑상품권(이음카드)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-농협은행 컨소시엄 선정

- 정량평가·가격평가에 이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적격자 순위 결정 -
- 협상 과정 거쳐 협약 체결 후 내년 1월부터 3년간 운영대행사 수행 예정 -
- 가맹점 결제수수료 제로화 또는 감면 결정, 시민편의 서비스 추진 예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사랑상품권(이음카드) 운영대행사 선정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‘코나아이-농협은행 컨소시엄’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.

인천시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이번 운영대행사 선정 입찰공고에는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. 참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 정량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데 이어, 11월 11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협상적격자 순위를 결정했다.

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는 총 187명이 지원했다. 이 중 50명의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했으며, 제안사 추첨을 통해 최종 10명이 선정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.

협상적격자 1순위로 결정된 코나아이-농협은행 컨소시엄은 현재 인천 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인천시 제2금고인 농협은행으로 구성돼 있다. 2순위는 신한카드-신한은행 컨소시엄, 3순위는 나이스정보통신-하나카드 컨소시엄이다.

시는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3년간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.

한편, 시는 지난 9월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 개편방안에 따라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 결제수수료 제로화,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가맹점 결제수수료도 감면하도록 결정했다. 또, 시민 편의를 위한 온·오프라인 고객센터 마련,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플랫폼 구축, 플랫폼 연계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홍창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“이번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공모 선정을 계기로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을 사전 제거하고, 지역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더욱 향상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 고 말했다.